

# 알렉사, 다저스타디움에서 미국 국가 가창



가수 알렉사(AleXa, 한국명 김세리)가 다저스타디움에서 미국 국가를 열창했다.

소속사 지비레이블에 따르면 알렉사는 16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경기 전 미국 국가 가창자로 나서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가창력으로 다저스 구장을 찾은 야구팬들의 큰 갈채를 받았다.

LA 다저스 측은 알렉사가 지난 10일 NBC 인기 경연 프로그램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American Song Contest)'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LA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연락을 취해 국가 가창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사는 지난해 9월 데뷔 첫 미국 공식 행사로 LA 다저스 홈구장에서 미국 국가를 가창한 바 있다. 당시 알렉사는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메이저리그처럼 저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는데, 1년도 안 돼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 우승자가 돼 LA 다저스 홈구장을 다시 찾아 더욱 의미 있는 방문이 됐다.

알렉사는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에 총 50여 개의 팀 중 유일한 K팝 아티스트로 참가, 마이클 볼튼 등의 유명 팝스타를 제치고 'K팝 아티스트 최초'로 미국 최대 규모 경연 프로그램의 우승자가 됐다. 우승자 특전으로 알렉사는 NBC '켈리 클락슨 쇼'와 '2022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출연했다.

사진=지비레이블

# 트와이스 나연, 솔로 활동 병행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이 데뷔 7년 만에 솔로 활동을 병행한다.

19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나연은 오는 6월24일 오후 1시(미국 동부시간 기준) 첫 솔로 미니 앨범 '아이 나연(IM NAYEON)'을 공개한다. 공개 일시는 금요일부터 일주일간 집계하는 미국 빌보드 차트 공략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음반명은 나연의 본명 '임나연'을 의미하는 동시에 '내가 바로 나연이다'라는 자신감 넘치는 메시지를 담았다.



▲ 트와이스 나연 솔로 이미지. 사진=JYP엔터테인먼트

나연은 2015년 10월 트와이스 멤버들과 데뷔해 이 팀이 K팝 간판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나연은 팬들 사이에서 '고유나연'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트와이스 에너지의 주축

을 담당했다.

나연은 2015년 10월 트와이스로 정식 데뷔한 이래 수많은 기록들을 세우고 'K팝 대표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트와이스는 데뷔곡 '우아하게'부터 최근 '사이언티스트'까지 16편의 모든 활동곡과 3편의 일본 발표곡 그리고 첫 영어 싱글 '더 필즈'까지 무려 20편의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역대 조회 수 반열에 올렸다. 이번 앨범은 올해로 데뷔 7년을 꼭 채우는 트와이스 내에서 첫 솔로 음반 시도다.

트와이스는 최근 네 번째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미국 5개 도시 9회 공연을 마쳤다. 공연마다 모든 티켓을 매진됐고, 약 15만 명의 관객이 트와이스의 공연을 보며 환호했다.

# 엠버 허드 "조니 뎀에게 반복적 학대 당해"



▲ 엠버 허드가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다. 사진=lamris.com

할리우드 스타 부부였던 배우 조니 뎀(59)과 엠버 허드(36)의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일 충격적인 증언이 추가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뎀이 신혼여행 때부터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때렸다는 허드의 주장이 나왔다.

영국 BBC에 따르면 허드는 이날 버지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눈물을 흘리며 뎀과 결혼생활을 이어갔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드는 "너무 무서워서 내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며 "난 그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를 무척 사랑했다."고 말했다.

허드는 뎀에게 반복적인 학대를 당했다면서 신혼여행 때에도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2015년 2월 결혼 후 아시아에서 오리엔트 특급 열차에 탑승하던 중 뎀이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허드는 "그는 아주 오랜 시간 내 목을 졸랐다"며 뎀이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떠올렸다.

허드는 결혼 생활이 "때때로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과 폭력이 거의 일상처럼 느껴질 정도로 관계가 악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뎀이 자신을 때리고 가구 속으로 던진 적도 있다고 상기했다. 허드는 또 뎀이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자주 자해했다고 주장했다.

뎀과 허드는 2009년 영화 '럼 다이어리'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2015년 2월 결혼했으나 2016년 8월 이혼에 합의했다.

## 성공을 향한 여정, KIM & CHOI 회계법인과 시작하세요!

지난 40년간 가든그로브에서 지역 한인 비즈니스와 세무관련 업무를 자문하고 수행하며 함께 이민사회의 발전과 역사에 동참해온 이광연 회계법인이 KIM & CHOI 회계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ACCOUNTING	TAX	CONSULTING
회계업무 급여 관련 예산/재무 계획 각종 세금 관련	개인/회사 세무 (타주포함) 인컴텍스/ 자산계획/관리 IRS, FTB, CDTFA, EDD 세무 회계 감사 해외자산 FBAR-Report	회사 설립 사업 운영 전략 재무/회계 상담 사업 가치 산정 각종 거래 관련

**KIM & CHOI** ACCOUNTANCY, P.C.

**Yongsuk (Bob) Kim, CPA**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Member of Galto McFerson, CPAs, 25 yrs.

**Sue Choi**  
- California State Univ. Fullerton  
- Antonio K. Lee, CPA, P.C., 12 yrs.

T. (714) 539-6444 | 9828 Garden Grove Bl. #213  
F. (714) 539-9261 | Garden Grove, CA 92844  
email: info@kimchoicpas.com

# 백천 운명철학원

뉴욕, 맨하탄에서 20년 만에 Laguna Woods, Irvine으로 이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언가 백천선생



백천 선생 (白泉 先生)

한국역술인협회 미주지구 회장  
국제 예언가협회 이사장  
1976. 한국역술인협회 정회원  
1977. 대한 경심연합회 중앙감찰  
1986. 세계 예언자 대회 동경  
1989. 국제 예언자 대회 홍콩  
2008. 한국 역술인협회 부회장  
2008. 제20회 서울 국제 역학대회

신수 재주 공초 재이 방택 이아 상  
수주 주합 혼혼 사향 일름 호호

### 영적과 학술을 겸비한 백천선생 감평

예정운/ 부부운/ 자녀운/ 직업운/ 사업운/ 재물운/  
학업운/ 주택구입시기/ 이사운/ 집매매운/  
풍수지리/ 방향/ 건강운/ 대인관계/ 동업운/  
관재/ 소송/ 삼재풀이/ 방책예방/  
\*부부 특별 상담 (숫자운)

\*코로나 사태로 당분간 전화상담만 받습니다.

전화 (213) 500-6363  
상담 (909) 347-0505

2381 Via Mariposa W #2h, Laguna Woods, CA 92637